

2025년 트렌드를 읽는 3개의 축

성장을 꿈꾸는 개인이 선택한 관계는 무엇인가?
 원한다면 24시간 어떤 콘텐츠든 즐길 수 있는데 그중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돈은 없다고 말하는 개인은 어디에, 왜 돈을 쓰고 있는가?
 빅데이터 분석기업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가 제시하는
 2025년 대한민국 트렌드를 소개한다.



#여가의 레벨업
 이 시대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을까? 데이터는 '낭만'과 '효율'이 공존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B급 소비
 매일의 집안일과 매일의 의복, 매일의 식탁에 즐거움과 보람을 주는 선택지로 B급이 부상하고 있다.

#AI 시대
 정확하게 질문하고, 방향성을 선택하고,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기.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역량이다.

#케어의 아웃소싱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엄마가 없는' 시대다. 나에게 잔소리하는 동시에 나를 돌봐주는 엄마가 사라졌다.

#1인 가구
 1인 가구의 선택에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상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과 로망을 담은 취향이 모두 담겨 있다.

#주류 감성
 주류 감성의 변화는 작용과 반작용의 끝없는 반복이다. 그 시점은 사람들이 '현타'를 느낄 때다.

#일상 브이로그
 사람들이 선망하는 삶은 전문가들이 만든 콘텐츠가 아니라 일상 브이로그를 통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엄마 아빠 아내 남편
 지금 우리 사회는 가족, 결혼, 육아라는 인생의 거대한 명제를 사회적으로 재개념화하는 과정에 있다.



* 본 내용은 <2025 트렌드 노트> 출판사 북스톤의 허가를 받고 발췌, 정리한 내용입니다.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가 제시하는 <2025 트렌드 노트>에 따르면 트렌드는 3가지 분야에서 나타난다.
 '이 신조어 알아?', '요새 유행하는 거기 가봤어?', '먹어봤어?'와 같은 단발성 유행이 아니라 생활 변화의
 경향성을 뜻하는 트렌드는 일상, 여가, 가치관 3가지 분야로 나뉜다.

일상

일상의 여가화

#케어의 아웃소싱 #여가의 레벨업
 #새로운 엄마 아빠 아내 남편

1년에 두 번의 방학, 8월 첫 주의 여름휴가, 14박 15일 유럽 배낭여행처럼 1년에 한두 번, 평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 여행과 여가성이 들어왔다. 평일 점심 산책 코스, 가족과 저녁 데이트, 주말의 성수동 팝업스토어 투어, 상수동 맛집 투어처럼 평일 또는 반복되는 점심·저녁에, 서울 아는 동네에서 '코스'와 '투어'라는 여행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매일을 참고 견디다 단 한 번 폭발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여가를 즐긴다. 일상이 중요해지고 루틴이 중요해진다. 일상적 변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불곰'이라는 말이 사라진 맥락도 이와 같다. 금요일만 불태울 필요도 없고, 금요일이라고 번아웃되도록 불태울 필요도 없다.

여가

레벨업 여가

#주류 감성 #일상 브이로그
 #AI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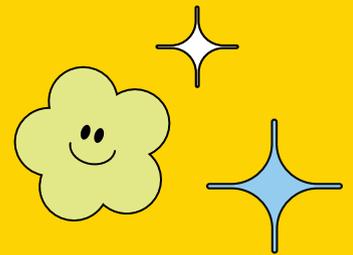
일상이 여가화된다면 여가는 어떻게 될까? 여가는 깊어진다. 여가는 단발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반복하면서 레벨을 올리는 취미가 된다. 프리다이빙 강습을 받으며 양평 수영장에서 동해, 강릉, 속초, 완도로 범위를 넓히고 마침내 필리핀,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해외 프리다이빙 명소로 여행을 기획한다면 프리다이빙은 취미인가, 여가인가, 여행인가, 그의 인생인가? 가족, 일, 그 사이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나만의 그 무엇, 평생에 걸쳐 지속하고 싶은 그 무엇을 여가에서 찾을 가능성이 커진다.

가치관

효율과 낭만

#1인 가구
 #B급 소비

트렌드를 길항이라 할 때, 길항은 가치관에서 목격된다. 산이 뒀으니 다음에는 바다가 뜬다는 식의 길항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계산적 사고의 효율이 뜨면 반대급부로서 무계획과 무지성의 낭만이 뜨는 식이다. 길항적 가치관은 순차적이기보다는 동시적이다. 어디를 가든 내비게이션으로 최적의 동선을 찾고, 한 군데를 가도 코스를 짜서 일석이조를 얻고, 1분 1초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는 '효율'을 내면화한 사람이 어떤 장면에서는 '낭만'을 추구한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야구장 하늘에서,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승패에 울고 웃고, 가장 비효율적인 '굳이여행'(굳이 갈 필요 없는데, 굳이 이거 하나 보러 간다는 비효율을 표방하는 여행)을 떠난다. 효율파와 낭만파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안에 효율과 낭만의 씨를 따로 갖고 있다. ✨



2025 트렌드 노트
 일상의 여가화, 여가의 레벨업

저자
 신예은, 박현영, 정석환,
 유지현, 권소희
 출판 북스톤